

# 김현수 시즌 2호 홈런 · 2루타 · 3타점 맹활약

### 지난달 클리블랜드전 데뷔 첫 기록 뒤 20경기 만에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20경기 만에 시즌 2호 홈런포와 함께 2루타를 터뜨리며 3타점 맹활약을 펼쳤다.

김현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8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 2볼넷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클리블랜드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때려낸 뒤 무려 20경기 만이다. 시즌 8번째 2루타와 함께 한 경기 최다인 3타점을 울리며 데뷔 후 최고 활약을 선보였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330에서 0.339(118타수 40안타)로 상승했다. 타점과 득점은 각각 9개와 16개로 늘었다. 장타 2개와 4출루 활약으로 OPS(출루율+장타율)는 0.834에서 0.889로 크게 올랐다.

이는 팀내 100타석 이상을 소화한 타자 중 매니 마차도(0.9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회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 선발투수 에린 존슨을 상대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던 김현수는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합체 방망이를 들었다.

무사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존슨의 초구 87마일(약 140km) 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깔끔하게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으로 연결했다.

지난달 30일 클리블랜드전 데뷔 첫 홈런 이후 한 달만에 나온 시즌 2호 홈런포다. 김현수의 홈런으로 볼티모어는 4-1로 달아났다.

방망이를 뜨겁게 달군 김현수는 팀이 1점을 더 달아난 6회 1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들어선 세 번째 타석에서는 2루타를 추가했다.

비건 투수 카를로스 비야누에비를 상대로 8구째 승부 끝에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가볍게 밀어쳐 좌측 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어냈다.

김현수의 안타로 2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이날 경기 자신의 3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또 조나단 스콧의 적시 2루타 때 홈을 밟아 추가 득점에도 성공했다.

볼티모어는 김현수의 2루타를 징검다리 삼아 6회에만 대거 7점을 뽑아내는 등 11-1로 크게 앞서 갔다.

이후 7회와 9회 두 차례 더 타석에 들어선 김현수는 뛰어난 선구안을 발휘하며 모두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김현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8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 2볼넷을 기록했다.

볼티모어는 7회와 9회 샌디에이고에게 각각 3점씩을 내주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11-7, 리드를 지켜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6연승을 거둔 볼티모어는 46승30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 자리를 확고히 했다.

/김민근기자



### 군산산복중 레슬링부 전국대회 메달 5개 획득

군산산복중학교교장 김성균) 레슬링부가 올해 각종 전국 대회에서 볼풍을 일으키고 있다.

산복중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41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를 비롯해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선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3학년 문진우 군이 그레코로만형 58kg급과 자유형 58kg급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형 70kg급 정유규 선수가 은메달, 3학년 김운산과 2학년 소원은 각각 자유형 54kg급, 그레코로만형 50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산복중은 올해 소년체전 무대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 등 무려 5개의 메달을 합작했다.

이 외에도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동메달 2개, 전라북도민체전 우승 등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한국 (U-17) 농구대표팀 세계선수권 첫 8강 진입

한국 17세 이하(U-17) 농구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9일(한국시간)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2016 국제농구연맹(FIBA) U-17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중국에 75-70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이 2010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독일대회에서 12위, 2012년 리투아니아대회에선 11위에 머물렀다. 2014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대회에선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은 8강전에서 대회 4연패를 노리는 세계 최강 미국을 만난다.

미국은 이 대회에서 세 차례 모두 우승을 차지한 최강국이다. 16강전에서도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109-56, 53점차로 대파해 대단한 실력을 과시했다.

한편, 한국-미국을 비롯해 리투아니아-프랑스, 터키-캐나다, 스페인-호주의 대결로 8강전 대진이 정해졌다.

/김민근기자

# 유로2016 잉글랜드 잡은 아이슬란드 세계축구 10대 이번 주인공

### 인구 33만명의 소국 첫 본선 진출후 8강 합류 '파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토너먼트에서 축구종가 잉글랜드를 꺾은 아이슬란드가 세계축구 10대 이번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9일(한국시간) 유로2016 아이슬란드-잉글랜드의 16강전을 포함한 역대 세계축구 10대 이벤트를 선정해 소개했다.

인구 33만명의 소국인 아이슬란드는 지난 28일 프랑스 니스의 스타드 니스에서 잉글랜드와의 16강전에서 라그나르 시구르드손(크라스노다르), 콜베인 시그토르손(낭트)의 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첫 유로 본선 진출에서 8강에 오르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상대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이 즐비한 잉글랜드였기에 후폭풍은 더 거셌다.

아이슬란드와 잉글랜드의 축구 저변 차이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잉글랜드의 등록 프로 선수가 4000여명

인 반면 아이슬란드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40분의 1이다.

이날 16강전에서 선발로 뛴 선수들의 몸값도 잉글랜드의 약 10분의 1수준이다. 잉글랜드가 약 3000억원, 아이슬란드가 약 350억원이다.

잉글랜드는 FIFA 랭킹 11위로 이번 대회 우승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이에 반해 아이슬란드는 34위로 24개 출전국 중 최약체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강팀에 강한 면모를 과시하며 유로2016의 히트상품으로 등극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로2016 예선에서 네덜란드, 체코, 터키를 제압했고, 본선 조별리그에선 포르투갈과 비기며 괴롭혔다.

아이슬란드는 다음달 4일 개최국 프랑스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1950 브라질월드컵에서 미국에 0-1로 패한 잉글랜드는 이번 10선에 두 차례나 언급돼 자존심을 구겼다.

1966 잉글랜드월드컵을 통해 처음으로



아이슬란드는 지난 28일 프랑스 니스의 스타드 니스에서 잉글랜드와의 16강전에서 라그나르 시구르드손(크라스노다르), 콜베인 시그토르손(낭트)의 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세계무대를 밟은 북한이 이탈리아를 1-0으로 꺾고 8강에 오른 것도 인상 깊은 업적(열세를 뒤집고, 약자가 강자를 꺾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1986 멕시코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가 1990 이탈리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카메룬에 0-1로 진 경기도 이름을 올렸다.

/김민근기자

### 여자배구대표팀 7월 말 네덜란드서 전지훈련

40년 만에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리는 한국 여자배구가 배구 강국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대한배구협회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2016 리우올림픽을 대비해 오는 7월23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은 7월25일과 28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 일펜도르에서 네덜란드대표팀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6일간 훈련을 마치고 7월29일 브라질 리우로 향한다.

이정철 감독은 "올림픽 예선전 이후 실전 경험이 없는 대표팀에 실전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높이와 파워를 모두 갖춘 강호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은 올림픽 본선에서 세계 강호의 높이와 파워에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표팀은 다음달 23일 네덜란드로 출국한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